

#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인권과 평화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은 여성의 시각에서 민주·인권·평화의 정신과 의미를 재조명해보는 뜻깊은 행사다.

특히 국내외 여성학자와 여성인권운동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 등 다양한 행사는 세계 여성의 연대 강화와 함께 광주를 여성인권 활동과 평화운동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학술회·대학생 토론회

27일 열리는 학술회는 모두 세 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다문화주의와 여성'을 주제로 열리는 1세션에서는 애다 노야스(이스라엘 위즈만 연구소 교수)씨가 '여성, 과학 그리고 평화'에 대해 발표하며 나오미 골든버그(오타와대 종교학과 교수), 한국영(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 교수), 메리 콘드렌(더블린 트리니티 대 여성연구소연구원)씨 등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문제점과 해결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제2세션은 '여성의 인권과 폭력'이 주제다.

신혜수(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씨의 사회로 무크타르 마이(여성인권운동가)씨가 '파키스탄 일반 여성의 고통'을 주제로,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상임대표)씨가 '전시화 성폭력 문제'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계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제3세션에서는 조라 바소(인도네시아 여성운동가)씨가

2007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개막



국내외 여성학자·인권운동가 대거 참가... 공연·전시 문화행사도 풍성

자) 박사와 김경신(전남대) 교수의 특별 강연도 마련돼 있다.

▲공연·전시 등 부대행사

26일 오후 8시 컨벤션센터 1층에서는 전야제 축하 공연이 열린다. 박상민, 박마마, 고무메, 김원중, 노래를 찾는 사람들, 최성수, 이웅 등 대중가수들과 크로스 오버 앙상블 허브, 외국인 중창단, 어린이뮤지컬팀이 출연한다.

'여성 인권·평화단체 페스티벌'도 행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열린다. 국·내외 여성단체와 자체 등 모두 90개 단체가 참여해 체험, 남도 특화, 먹거리, 볼거리 등을 주제로 부스를 운영한다.

28일 오전 10시10분에는 4층 컨벤션홀에서 폐막식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시립합창단, 혼연콘서트콰이어 등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이 '세상의 모든 딸들아' 등을 들려주며 광주아버지합창단과 광주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 지역특별상 수상팀의 공연도 이어진다. 또 행사 기간 중에는 월드비전과 공동으로 '세계여성 인권·평화 구호기금(복표액 1천만원)' 마련 행사도 함께 펼치며 여성발전사, 평화인권 관련 서적 전시, 5·18 사진전 등 다양한 전시회도 열린다.

26~27일 광주문화회관에서는 세계여성평화포럼을 축하하는 '2007 광주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광명여성합창단, 서울영등포구립합창단, 광주동구합창단 등 전국의 44개 여성합창단이 참여, 열띤 경연을 펼친다. 대상 1팀에게는 1천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등 모두 4천 2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질 예정.

27일 오후 3시부터는 대극장 로비에서 합창단원들의 '사귐의 장' 시간을 마련한 남도 꽃차와 남도 음식명인들이 마련한 먹거리 함께 나누며 광주 침체 축제 등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 담양 출신 정토옹씨 '역사 속의 전사들' 내

담양 출신 정토옹(육군사관학교 군사사과 교수)씨가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를 묶은 '역사 속의 전사들'(매일경제신문사)을 펴냈다.

'아시리아 전사부터 게릴라까지'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수 많은 역사 속 전쟁의 '사람이야기'를 다크로고 있다. 저자는 "전쟁사를 통해 사람들의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를 살피고, 전쟁 상식을 넓히기 위해" 책을 썼다고 말하고 있다.

1부(전사들)와 2부(명장들)에서는 전쟁 영웅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출현했고, 어떤 운명을 밟았는지를 살피고, 3부(여성들)와 4부(그 밖의 사람들)는 전쟁에서 여성의 역할, 게릴라나 의병, 종군기자 등 정사(正史) 밖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편 정씨는 광주고와 육군사관학교,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30년 넘게 육사에서 교관을 맡고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한국문화표현단, 문화독립기행 참가자 모집

사업법인 한국문화표현단(이사장 최준식)은 SK텔레콤 후원으로 8월 8~15일 전라남도 및 제주도 일대를 탐방하는 제3회 문화독립기행 행사를 진행한다.

'세계에서 한국으로 : 세계 대학생들과 함께 한국문화 알리기'를 주제로 삼은 문화독립기행은 한국 대학생 30명과 외국 대학생 20명이 함께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서울과 전주에서 한국의 왕실 및 사대부문화를 체험하며 광주에서는 남도 음식을 시식한다. 또 한국의 자연 체험(월출산 국립공원), 한국 전통음악 체험(진도), 불교문화 체험(대흥사), 해양문화 체험(제주도) 등의 일정이 마련됐다.

참가희망자는 한국문화표현단 홈페이지 (<http://www.hanmunpyo.org>)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 한·중·일 화폐변천 한눈에

### 박용권 씨 '동국화폐사' 展

#### 내달 1일까지 광천터미널서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의 화폐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화폐 수집가 박용권(41)씨가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광천터미널 내 유·스토리(영풍문고 앞)에서 '동국화폐사'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씨가 초등학교 때부터 수집해온 화폐 3천여점 가운데 300여점을 선보인다.

희귀화폐로는 중국 주나라 때 사용된 동물뼈로 만든 세계 최초의 화폐인 글폐화를 비롯 구한말 담당 은화 등이 전시된다. 은화는 국내에 10여종 밖에 남아있지 않는 진귀화폐다.

아시아권에서는 베트남과 일본의 화폐를 비롯 북한의 지폐 35종도 전시된다.

국내 화폐로는 경기감영, 평양감영, 전라감영 등 조선시대 52개 주전소(鑄錢所)



'동국화폐사 전시회'가 25일 광천터미널 내 유·스토리(영풍문고 앞)에서 열리는 가운데 관람객들이 개막에 앞서 전시된 화폐를 관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별로 제작된 상평통보 등 108종 화폐가 선보인다.

우리나라 화폐의 역사를 총정리한 조선전사(朝鮮錢史·서울대 박물관 소장) 복사본을 비롯 일본에서 발행한 동아전지(東亞錢誌) 등도 소개된다.

전시기간 중에는 관람객들이 소장하고 있는 화폐를 감정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문의 011-604-6132.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 공동감독제 성공하려면

지난 2001년 일본의 요코하마는 광주비엔날레의 독주를 견제할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요코하마 트리엔날레(3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미술전)다. 세계무대에 자랑할 만한 문화이벤트가 없었던 일본은 이 트리엔날레를 통해 문화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했다. 요코하마 트리엔날레는 신생대회임에도 불구하고 2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을 동원하는 자력을 과시했다.

무엇보다 요코하마 트리엔날레가 시선을 끌었던 것은 4명의 미술가획자들을 한데 둑은 공동감독제였다. 1인 예술감독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 비엔날레와는 차별화된 시도였던 것이다.

참신함을 내걸었던 요코하마는 그에 못지 않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코모토 신지, 나카무라 노부루, 난조 후미오, 다테하라 아키히로 등 개성 강한 4명의 감독은 전시기획에서부터 파티션(전시장 칸막이 설치작업)에 이르기까지 이를 보인 것이다. 이 때문에 조직위는 준비기간 내내 이들의 '불안한' 동거를 가슴 졸이켜봐야 했다. 다행히 '예가 웨이브·새로운 통합을 위하여'라는 전시 주제처럼 각자 목소리 볼륨을 최대한 낮춰 큰 잡음없이 대회를 마쳤다.

하지만, 조직위원회는 사후 평가서에서 (이 공동감독제에 대해) 'No good'이란 인색한 점수를 줬다. 대회는 무난하게 치렀을지 몰라도, 공동감독제로 인한 시행착오를 두 번 이상 겪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요즘 광주비엔날레의 체면이 말끔이 아니다. 2008 비엔날레의 예술감독 리스팅에 오른 일부 후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고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부터 예술감독 선임에 올인해 왔던 재단은 6개월째 후보를 찾느라 적잖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재단이 감독 선임문제로 고전하고 있는 것은 올해 첫 도입한 내외국인 공동감독제 때문이다. 공동감독제는 비엔날레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되 한국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에게 전권을 맡기는데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국인을 파트너로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앞선 나머지 공동감독제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후보난'을 톡톡히 겪고 있다. 공동감독제의 경우 1인 감독과 달리 두 사람간의 호흡과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광주비엔날레 내국인 감독에 오른 한 후보가 "재단의 자대로 선정한 외국인과 호흡을 맞출 자신이 없다"며 후보 지명을 고사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잘 반영한다. 이런 이유로 공동감독제를 채택한 일부 비엔날레들은 시차를 두고 먼저 선임된 감독에게 파트너 선택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예술감독 선임은 성공비엔날레로 가는 첫 관문이다. 재단은 공동감독제라는 큰 틀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외국인 후보 중 한 사람을 먼저 뽑고 그 감독에게 파트너를 고르게 하는 묘안을 발휘해야 할 때다. 재단의 유연한 자세가 하루빨리 진퇴양난에 빠진 공동감독제를 구하는 길이다. 언제까지 감독 선임에 매달릴 건가.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데가박스

구.런던약국사거리 ♥예매 1544-0600

1관 검은집 (18세)	최고급관
2관 오션스 13 (12세)	
3관 캐리비안의 해적3:세상의 끝에서 (12세)	
4관 황진이 (15세) / 뜨거운 녀석들 (18세)	
5관 황진이 (15세) / 슈렉3 (15세/한글자막)	
6관 두번째 사랑 (18세)	
7관 검은집 (18세)	
8관 라브앤파티클 (15세)	
9관 4.4.4 (18세)	

5월 1일부터 매기타존 데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이 한회)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 주차장이 편한 극장

###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2관 황진이 (15세)
3관 검은집 (18세)
4관 대스워터 (15세)
5관 슈렉3 (전체)
6관 황진이 (15세)
7관 밀양 (15세)
8관 밀양 (15세)

금,토(2일간) 십야상영

\* 자주식 동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 매주 금·토 십야 2,000원 할인 \*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사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비아 하남점 (10관) 절친리 상영증

상영일연결 방법  
-1번 or 2번 - 0번

횡도시청 영화시청장 \*예매: www.joycbc.com / 1588-7941

### 즐거움이 가득

###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뜨거운 녀석들 (18세)
2관 두번째 사랑 (18세)
3관 슈렉3 (12세)
4관 검은집 (18세)
5관 4.4.4 (18세)
6관 오션스 13 (12세)
7관 황진이 (15세)